

## 한국대학생 방일단 초빙사업기록

###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ENESYS)’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이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학교방문, 강의청강 등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 한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한국 대학생 등 30명  
초빙 프로그램 한국 대학생 등 29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도쿄도(東京都) 30명  
초빙 프로그램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현(埼玉県), 히로시마현(広島県),  
오사카부(大阪府) 29명

#### 【일정】

##### ■ 사전 프로그램:

9월 2일(토) 대학생방한단 단원들과 의견교환(온라인)  
9월 16일(토) 대학생방한단 단원들과 의견 교환(대면)  
10월 6일(금)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 ■ 초빙 프로그램:

10월 31일(화)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11월 1일(수) 【표경】 외무성, 환영 중식회  
【표경】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 재일한인역사자료관  
11월 2일(목) 사이타마현으로 이동  
【학교방문·교류】 사이타마여자단기대학  
【시찰·강의】 고마신사(高麗神社)  
11월 3일(금) 【교류】 대학생방한단 단원들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성과보고회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시찰 등 신오쿠보 필드워크 포함)  
11월 4일(토) 히로시마현으로 이동  
【교류】 홈스테이  
11월 5일(일) 【교류】 종일 홈스테이  
11월 6일(월) 【표경·강의】 히로시마현청 ‘국제교류원의 관점에서 본 히로시마의 매력’  
【시찰】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강의청강】 피폭체험 강화

【시찰】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원폭돔

11 월 7 일(화) 오사카부로 이동

【시찰】 오사카 ATC 그린에코플라자

성과보고회(방일 성과·귀국 후의 활동계획 발표)

11 월 8 일(수)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출국

## 2. 기록사진



2023년 11월 1일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 【표경】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2023년 11월 2일 【학교방문·교류】  
사이타마여자단기대학



2023년 11월 2일 【시찰·강의】 고마신사



2023년 11월 3일 【교류】 대학생 방한단 참  
가자와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2023년 11월 4일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  |   |
|--|---|
|   |   |
| <p>2023년 11월 6일 【표경·강의】 히로시마현청<br/>‘국제교류원의 관점에서 본 히로시마의 매력’</p>                    | <p>2023년 11월 6일 【시찰】<br/>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p>   |
|  |  |
| <p>2023년 11월 7일 【시찰】<br/>오사카 ATC 그린에코플라자</p>                                       | <p>2023년 11월 8일 【성과보고회】</p>   |

### 3. 참가자 감상(발췌)

#### ◆ 한국 대학생

홈스테이를 통하여 일본인과 실제로 생활하고 일본인의 생활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두 번 다시 원폭과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또 한 번 느꼈다.

#### ◆ 한국 대학생

시찰을 통하여 한국에서 배웠던 것을 일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도 교류가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교류활동 중에 일본인 친구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의 매너가 좋은 것에도 감동했다.

#### ◆ 한국 대학생

한일교류활동과 일본의 매력에 대해 주위의 지인에게 알리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인을 위해 일본 사회와 문화의 차이, 취업가능한 수단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싶다. 이로써 인재의 직접적인 교류가 늘어나 한국의 취업난과 일본의 인재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4. 일본 측 감상(발체)

##### ◆ 고마신사 관계자

2023년 11월 2일, 한국대학생방일단을 고마신사에 모셨습니다. 각각 약 40분씩 경내 안내와 강연을 하였으며 그 외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사이타마여자단기대학에서 일본 학생들과 교류한 덕분인지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긴장이 풀린 편안한 상태라서 매우 이야기하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항상 저희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퀴즈와 같은 질문에도 기꺼이 응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 ◆ 교류회에 참가한 대학생방일단 참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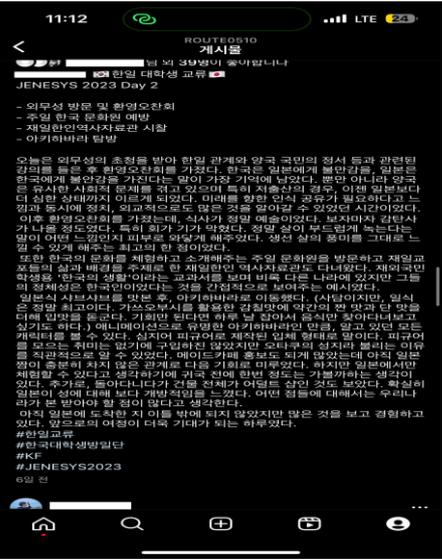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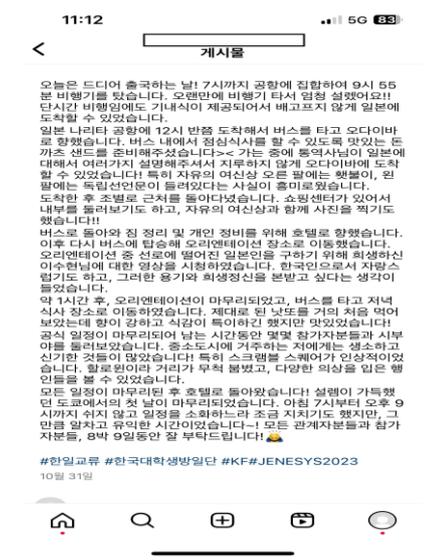
지금까지 자신이 히로시마에서 평화가이드 자원봉사로 활동해 온 가운데 익힌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방일단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학내에서 한일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미 30명이 넘는 일본 학생들, 10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 분들에게 참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행사를 성공시켜 한일청소년교류를 촉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 ◆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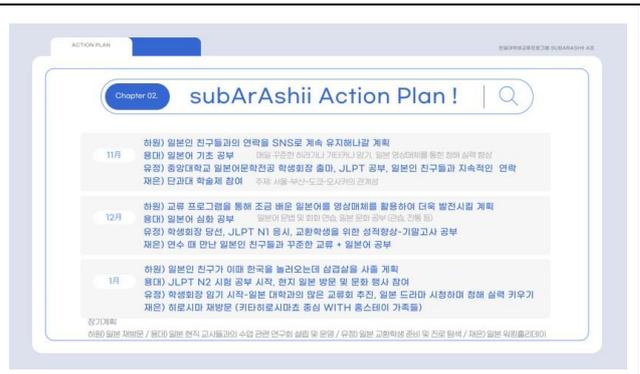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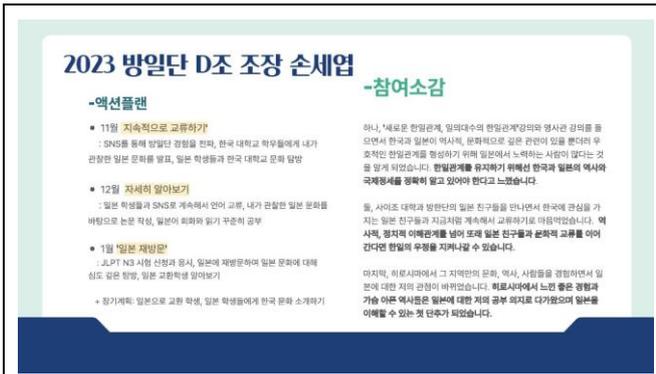
홈스테이를 한 3명 모두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라서 공기나 강물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사회의식이 높았으며 한일의 정치와 여성차별문제, 한국의 징병제 등 폭넓은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  |   |
|--|---|
|   |   |
| <p>2023년 11월 6일(Blog)<br/>         자료실을 걸으면서 단 한 번도 편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자꾸 눈물이 났다. 그때 내가 본 것은 몇 명의 사상자가 났는지 어떠한 정치적 의견이 오갔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날 파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p> | <p>2023년 11월 4일 (Instagram)<br/>         아침부터 이동하느라 피곤했지만 홈스테이 부모님이 잘 챙겨주셨고 충전된 느낌이였다. 밤에 본 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것은 오랜만이라 행복한 시간이였다.</p> |

|   |  |
|---|--|
| <p>었다.</p>   |    |
| <p>2023년 11월 1일 (Instagram)</p> <p>양국에는 유사한 사회문제가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심각하다. 미래를 향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고 느낀 동시에 정치, 외교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p> | <p>2023년 10월 31일 (Instagram)</p> <p>오리엔테이션 중에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이수현 씨의 영상을 시청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그러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
|    |    |
| <p>2023년 11월 6일(사이타마 신문)</p> <p>‘히다카(日高)·고마신사에서 한국 대학생, 단대 학생과 교류’ 사이타마여자단기대학에서의 교류와 고마신사에서 고대의 일본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 등에 대해서 배운 모습을 소개.</p>           | <p>2023년 11월 20일(히로시마 TV)</p> <p>‘G7 히로시마 정상회의로부터 반년 경제파급 효과는?’ 일행의 원폭자료관 방문모습을 학생의 인터뷰와 함께 소개.</p>                                      |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도쿄도, 사이타마현, 히로시마현, 오사카부)



**【방일 중의 배움】**  
 양국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국제정세를 정확히 알아야 한 필요가 있으며 서로가 힘을 합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느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역사적,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동세대의 일본 친구들과의 문화교류가 계속된다면 양국 간 우정을 지킬 수 있다.

**【액션플랜】**

- SNS 를 활용하여 방일단의 경험을 한국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본 일본의 문화에 대해 발표한다.
- JET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일본의 지방에서 한국에 대해 알리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지방에 대하여 알리는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

**【방일 중의 배움】**  
 한국과 일본은 서로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상호보완하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방문을 통하여 전쟁의 비참함을 실감하였으며 흥스테이에서는 지방도시의 매력과 문화의 차이에 대해 배웠다.

**【액션플랜】**

- 소속대학의 일본어문학전공 학생회장에 출마하여 일본의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 올해 안에 히로시마현을 재방문하여 흥스테이에서 신세를 진 기타히로시마초(北広島町)의 가족들과 재회한다.
- SNS 를 활용해 일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